

피난 생활 보고 · 避難生活報告 59

보금자리 만들기

네 가정이 건축중인 교회 근처로 중고 주택을 구입해 주거를 정했습니다. 이번주는 다섯 번째 가정이 중고 주택을 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새집을 지어 내년에 입주하려는 분도 계셔서 교회의 재건을 향한 마음이 든든합니다.

저는 지금 등지만들기의 한창인지요? 돌연 폭풍으로 인해 한 순간에 날아가버린 교회나 성도님들의 보금자리를 위해 나뭇잎이나 가지등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인지요? 성도님들이 보금자리를 마련하고 폐쇄중이던 교회가 새롭게 재건된다면 저는 노고를 아끼지 않으렵니다.

그런데 저희는 슬픔을 이미 충분히 맛보았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도 시간이 지나도 슬픔은 언제까지나 남아있는 것인지요. 오랜 피난 생활의 탓인지, 아니면 나이가 든 탓인지, 요즘 몸이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 그 분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인생의 졸업식을 할 때까지 슬픔도 졸업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구약 성서의 욥기에서는 재산과 가족 거기에다가 건강까지도 잃게 된 욥이 말로 표현할 길 없는 고통 속에서 신앙도, 친구관계도 무너져가는 중에 그 괴로운 시기를 넘어서서 후에 새로운 세계로 이끌려 가는 모습이 쓰여있습니다.

잃어버린 전 재산이 두배가 되었고 자식도 아들 7명과 딸 3명이나 두는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아들은 성서에서 말하는 완전수이고 딸들은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 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고 욥기 42 장 15 절에 쓰여있습니다. 그의 후반 인생은 전반 인생에서 이룩했던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고 난 후에 잃은 것의 두 배나 되는 축복을 받아 새로운 출발을 하는 극적인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번에 뜻하지 않았던 지진 재해를 만났습니다만 재난을 당한지 1 년 반이 지나 이 괴로운 길을 통과한 모든 분들이 욥과 같은 축복의 삶이 되기를 마음으로부터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저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지만 지금은 잃어버린 것의 두배나 되는 축복을 받고 회복되었습니다'라고 환하게 웃는 얼굴을 보고 싶습니다.

물론 예전에 경험한 슬픔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겠지요. 욥도 다시 자녀를 두게 되는 축복을 받았다고 하여 잃은 자녀들이 돌아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슬픔은 언제나 마음 속에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의 아픔을 위로하시고 큰 축복으로

그를 감싸주셨습니다.

전국으로 흩어진 성도님들도 이제부터 더더욱 축복받아 언젠가 눈물로 얼룩진 상처가 완전히 치유되어 미소가 넘치는 얼굴로 재회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각각 마음으로 느끼는 행복의 기준이 다른 것 같습니다. 충분히 혜택을 받고 있음에도 자신은 불행하다고 느끼는 사람이 있으며, 아무 것도 없어도 자신은 행복하다고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요전에 성도님들과 서로의 은혜를 나누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이 '사실은 고향 집이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집이 낡아서 수리를 자주 해야 했고 집을 유지관리하는 것이 고민거리였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지진 재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집을 정리하고 시영주택에라도 들어가려고 생각하던 참에 지진 재해를 만난 것입니다. 이 지진재해로 그동안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분은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저는 예전에 일에 중독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그러한 생활환경에서 강제로 떠밀려나와 생을 즐겁게 지내며 알맞게 일을 하는 생활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활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했습니다.

이 외에도 '이전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할 수 없었던 斷捨離(단샤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斷捨離(단샤리:물건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정리하는 것등)

물론 고향 집을 쫓겨나와 슬프지 않을리가 없겠지요. 그렇지만 그 고난을 통해 만난 세계도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은 잃은 것은 크지만 이로 인해 얻은 것도 적지만은 않은 듯 합니다.

이전의 옫과 같이, 하나님은 이제부터 저희들을 넘치는 축복으로 끊임없이 부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도 같이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아파트를 찾아봐야겠습니다. 당분간은 새 등지만들기에 전념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도님들의 입에서 '주님은 나를 치셨지만 지금 이렇게나 큰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라는 고백을 들을 때까지 말입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네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상 제 4 장 10 절)

이렇게 기도한 아베스처럼, 또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제 6 장 24~26 절) 라고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은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그대로 받아 의지하는 훈련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전에 도쿄 캠프장에 있었을 때 선교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무상원조를 받아야 한다는 것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지요. 선교사 생활의 첫 걸음도 각 교회를 돌며 지원을 부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서 생활하는 것부터 배우는 것입니다."라고.

저희들도 지금 그 생활을 배우고 있는 중이지요? 지진 재해로 인해 모든 것을 잃고선 하나님과 모든 분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서 단지 은혜만으로 이곳에 겨우 도착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경영하는 방정식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었는지요?

처음부터 죄를 용서받는 것과 구원의 세계 그리고 하늘나라에 이르는 길까지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요.

(10 월 5 일 아즈사 17 호에서)

저는 지금 나가노현(長野縣) 이이다시(飯田市)에서 집회를 마치고 이이다선(飯田線)으로 이나(伊那)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이이다시(飯田市)는 작년 3 월 지진 재해 직후에 후쿠시마현 소우마(相馬) 분들을 많이 받아주셨다고 들었습니다. 고마운 마음과 동시에 저 동북태평양 해안에서부터 이 곳 내륙에까지 당시에 피난 온 것을 생각하면 저 지진 재해는 단순한 지진이 아니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치 전쟁이 난 것 같이 하늘에서 폭탄이 떨어져 한순간에 사방팔방으로 고향에서 아득히 먼 곳까지 떨어져 나간 것이라고,,, 지진 재해가 할퀴고 간 상처 자국은 예상외로 상상을 초월한 아주 깊은 것이었습니다.

각지를 떠도는 철새와도 같은 저의 이런 생활도 지진 재해후 1 년 반이 지나 슬슬 막을 내리려나봅니다. 연말에는 교회가 완성되는 것을 계기로 한 교회의 목사로서

본래의 생활로 돌아가는 시기가 온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도 과제는 많이 남아 있습니다만 그렇다고해서 언제까지나 이러한 생활을 계속할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적절한 시기에 gear change 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진 재해와 운명공동체와도 같은 여행생활도 한편으로는 그립기도 합니다. 지진 재해가 초래한 이러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10 월 6 일, 이와키 아파트에서)

어제 1 년 반만에 나가노현(長野縣)에서 피난하고 있는 성도님과 재회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나서 성도님과 그동안에 쌓인 이야기를 하는 중에 오랜 피난 생활로 인해 우울증에 시달렸던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 생각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갑자기 집에서 쫓겨나와 고향을 잃고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뭔지도 모르는 여행생활에 끌려다닌다면 우울해지지 않을 수 없겠지요.

바보처럼 제 의지와는 관계없이 헤어질 때 저도모르게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언제까지고 이렇게 자신의 마음을 가눌 수 없다는 것이 부끄럽기만 합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이 지진 재해후에 니이가타현(新潟縣) 오지야(小地谷)시에 피난하게 되었다고합니다. 피난처에 도착해 보니 잠옷에서 속옷까지 모두 새옷들로 나열되어 있었고 마중나와 주신 시장님이 "여러분 마음에 드는 물건은 무엇이든지 가져다 쓰십시오 저희들도 예전에 지진재해를 당했을 때 많은 분들에게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드디어 은혜를 갚을 때가 온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또다시 눈시울이 뜨거워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지진재해 후 일주일 동안 갈아입을 옷이 없었던 성도님은 얼마나 감사했겠는지요.

그 후 시내에 있는 각 가정에 홈스테이를 하게 되었고 또한 일주일 동안이나 스님이 있는 절에서 신세를 졌다고 합니다. 떠나올 때 스님은 배웅까지 하러 나오셨다고 했습니다. 저는 성도님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정말 언제까지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우는 이러한 이상한 상태가 계속되겠는지요.

(10 월 8 일 이나시(伊那市)에서)

저는 지금 나리타(成田)에서 대만을 향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올해 들어 두 번 째입니다만 이번에는 타이베이에서 가오슝(高雄)으로 남하해서 보수침례교의 60 주년 기념 대회에서 지진 재해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여행이 되겠는지요.

화제를 바꿔 저는 그저께 조카딸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와테현(岩手縣)에 있는

캠핑장으로 향했습니다. 먼저 연세 많으신 부모님을 마중하러 가기 직전까지 계속해서 내리던 장대비가 그쳐서 겨우 마음을 놓았는데 산간에 위치한 그 캠핑장은 예상외로 너무 추웠습니다. 그래서 몸이 좀 편찮으신 부모님의 건강이 염려되었습니다. 그러자 자녀와 손자들이 강한 바람막이가 되도록 부모님 주위를 둘러쌌습니다. 마치 남극의 황제 펭귄 무리같은 기묘한 광경이었습니다.

혹설의 남극에서 소중한 알을 발 위에 올려 자신의 털로 덮고는 부화의 그 날까지 서있는 상태로 극한의 눈보라를 견디는 황제 펭귄들, 모두가 조금씩 위치를 바꾸면서 강한 바람을 분산시키는 그 광경이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저희들이 인생의 여로를 걷고 있을 때 항상 저희와 함께 하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이 되어 마치 방패와 같이 저희들을 둘러주셨던 것이었다고,,, 이때 저는 다음과 같은 성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니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니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시편 18 편 2~3 절)

(10 월 15 일 나리타(成田)~대만편)

타이베이에서 선교사 묘지를 방문해 예전에 대만에 선교로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한 선교사님은 대학교수의 길을 마다하고 선교사의 길을 선택해 대만으로 건너와서 최후에는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또 한 일본인 선교사님은 소수부족인 쿠비카리(목 사냥) 족을 전도한 것으로 인해서 살해되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맹세했던 그 아들도 마지막에는 대만에 선교사가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대만 선교의 역사에 새겨진 캐나다인 마카이선교사님(Mackay)의 이야기가 인상깊었습니다. 그는 평생 대만의 산과들 그리고 바닷가를 돌았고 강을 건너서 구석 구석까지 선교하였고 신학교를 세워 제자를 양성했습니다. 그의 발자취가 지금은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이어지는 미션스쿨(mission school)에서, 또한 대형 Mackay 종합병원에서 계승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거리에 마카이선교사님의 동상이나 마카이 거리라고 명명된 대로까지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홀로 걷기 시작한 선교의 길은 부모와 누나의 임종도 볼 수 없는 험난한 길이었지만 그 남긴 것이 얼마나 큰 가치를 지닌 것인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고향에도 예전에 미국인 선교사님이 오셨습니다. 시골 전도를 목적으로 일본에 오신 그 부인은 그 후 일본에서 한 줌의 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교회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저희들 교회입니다.

훗 날에 대지진 재해의 큰 폭풍의 소용돌이에 휘말려 유랑을 하기 시작한 것도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저희 교회에서는 '갈릴리에서 세계로'라고 미래를 향해 노래했습니다. 그렇지만 설마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 있었겠는지요. 아직 앞은 보이지 않지만, 내일을 모색하며 하루 하루를 살아가고 있지만, 이렇게 만난 적도 없는 여러분들을 만나고 바다 저 편 분들과도 관계를 맺게 되리라고는 생각지도 않았던 전개였습니다.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마태복음 3 장 9 절) 하나님은 불면 금방이라도 날아가버릴 것 같은 약한 저희들을 살피시고 이제까지 손잡아 이끌어주셨습니다. 저희들도 틀림 없는 하나님 나라의 스토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대만의 신칸센 안에 있습니다. 이 열차 혹시 일본제인가요? 이번 가오슝(高雄)에서 열리는 대만보수침례교 60 주년대회에 초대되어 갔습니다만, 텔레비전을 켜도 간판을 봐도 여기저기 일본의 프로그램이나 제품 표시등이 눈에 띄어 일본에 대한 친밀하고 따뜻한 분위기를 느끼는 여행이었습니다.

대만의 보수침례교에서는 이미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만 이번에도 전번에 이어 계속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문제로 긴장되어있는 최근의 국제관계는 반드시 변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만의 크리스천 인구는 예전에 3 퍼센트였던 것이 지금은 6 퍼센트 가까이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타이베이는 15 퍼센트에 가깝다고 합니다. 풍습이 강한 시골은 어렵다고 해도 적응시키면 5 에서 7 퍼센트는 된다고 했습니다. 1000 명이 넘는 큰 교회도 지금은 국내에 40 곳 이상 있다고 합니다.

너무 부러운 이야기입니다. "무엇이 부흥의 계기가 되었습니까?" 라고 묻자, 먼저 교파를 넘어서 마음을 하나로 한 기도가 있었던 것과 그 다음으로는 현대에 맞는 전도 방법이었고 그리고 소그룹의 활동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덧붙여서 또 하나는 지진이나 태풍등이 잇따른 지진 재해의 영향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지진 재해로부터 10 년이란 세월이 지나서 부흥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과연 자연 재해는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는지요.
그리고 일본인의 마음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향하겠는지요.
(10 월 18 일 가오슝(高雄)행 신칸센내에서)